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성경: 마가복음 2장 13-17절

Tag: 4차원의 영성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막2:13-17)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13-17절은 마태복음 9장 9-13절과 누가복음5장 27-32절과 병행문단이다.

마가는 이곳에서 아마 마태의 본명인 레위로 기록한 것 같다.(누가는 마가의 기록을 의지해서 레위로 기록했으나, 마태는 자기 이야기이므로 새 이름을 사용한 것 같다.) 마가는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다. 마가는 마가요한이라고도 불리웠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레위는 본명일 가능성이 크고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혹인 레위 마태. 뜻;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맨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제자이다.

-오늘 본문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때 큰 무리가 나아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아마 마태는 이때 청중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마태의 직장 가버나움의 세관은 이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다. 마태는 관세업무를 맡고 있었다. 당시 세리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친로마파였으며, 동족들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그의 동생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다. 그래서 마태는 매국노요, 동생은 독립운동가였다.(마태가 독립자금을 조달했나?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동생 야고보는 성경에서 드러나게 행동하던 자가 아니었다.)

아무튼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결국 40년후에 나라는 멸망당하고 만다. 예수님은 격변의 시기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죽임을 당하셨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태 형제단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이유는 전도가 목적이었다. 마태는 세리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1. 가장 핵심적인 그룹;베드로와 요한, 야고보;큰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번째 그룹; 빌립(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친구이며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돌로매(나다나엘)

세 번째 그룹;도마(마태의 친구) 마태, 마태의 동생 야고보;작은 야고보, 다대오 (다대오는 유다 다대오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형제라는 말도 있음) (*마태의 동생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제자라기 보다, 부활을 목격하고 후에 제자들의 그룹에 합류한 사람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네 번째 그룹;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셀롯당.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오래 전부터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이고, 마태 또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날 마태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제자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마 마태는 퇴임잔치를 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동료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 잔치에 동생 야고보와 그 아들 다대오가 참석했을까? 어떤 해석가는 이들은 형제지만 이념이 극과 극으로 달랐기 때문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피력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비록 동생들인 야고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마태는 형으로서 야고보의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 마태는 야고보와 그 아들 다대오가 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야고보의 과격하고 울분에 찬 행동이 변하고 조용한 모습이 되는 것을 지켜본 것이다. 실제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성격과 하는 행동이 가장 닮은 제자는 마태의 동생 야고보였으며,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로 아주 겸손했다고 한다. 다대오는 유다 다대오로 알려진 인물인데 성경에서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로 자주 소개되었다. 다대오 또한 매우 세속적인 인물이었지만, 나중에 아주 변화된 제자가 되었다. 이런 모습을 마태가 보고 예수님의 콜링에 선뜻 임하게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아마 마태는 민족주의자 야고보와(마카비 혁명 세력?) 다대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라서 감히 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 없는

존재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날 갑자기 마태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마태로서는 하늘이 명하시는 명령처럼 여겼을 것이다. 나 같은 자도 부르시는구나!

그는 크게 감명을 받고 그 즉시 자신의 정체성을 180도 바꾸게 된다. 마태를 따라 동료 세리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전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내막이 있었다. 나는 야고보와 다대오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이 세속적이며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있으니 이런 신령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회개를 주장하며 율법을 해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국노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살인자, 떼 도둑놈들도 있다. (야고보와 다대오의 친구들, 시몬과 가롯 유다 등)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7a)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9:13)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7b)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의 큰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 회개운동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개 운동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이어진 것이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

가고 그러자 생각이 고쳐지기 시작하였다. 생각이 고쳐지자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병든자들은 병이 나았다. 병 때문에 고통 받고 삶이 망가졌는데 병이 낫자 새 사람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요즘은 병이 큰 문제가 아닌 듯싶지만, 사실 병은 사람의 삶을 바꾼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건강이 병든 삶을 순식간에 바꾼다. 그런데 회개가 먼저다. 회개하지 않고 건강하면 무엇이 유익인가? 영혼을 잃으면 온천하를 얻은들 무엇이 유익인가? 세상에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회개하고 병이 나아야 한다. 그래야 새 삶을 살아간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한다.

마태는 어떤가? 마태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 먼저 동생 야고보와 다대오가 바뀌었다. 마태처럼 철저하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없다. 마태는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이념을 바꾼 사람이다. 우파 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념을 바꾸었다. 진정한 회개는 마태 가족이 했다.

이 형제들은 귀신이 들려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 병을 고친것도 아니다. 바로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바꾼 것이다. 가장 전형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이 된 셈이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9:13)

기억이 선명한 마태가 기록한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보다 긍휼이 먼저다. 즉, 영혼을 돌보는 것이 먼저다. 영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제사가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즉,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데 제사니 율법이니 장로들의 전승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에서는 긍휼이 먼저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 그러면 왜

하필 ‘궁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
라 하시니라 (17b)

‘죄인’에 대한 궁핍이기 때문이다. 제사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영혼이 죽었는데 그를 붙잡히 여기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이를 영혼없는 아이로 키우는게 말이 되는가? 밥먹이는 것 보다 영혼을 키워야 한다. 아멘.

-진정한 복음과 기독교인의 진정성은 모든 지역주의, 사상적 율법주의, 문화 정서적 편향성, 신분이나 인종 등 사회적으로 차별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죄인들에게까지도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두지 않으실 수 있으셨다.

-죄인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반항심이나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다.

-정말 죄인들의 회개를 갈망하는가?

-진정한 회개란 절대적인 회복이 전제 되었을 때 가능하다. 만약 회개로 인한 실제적 손실만 더 커 보인다면 아무도 거짓회개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찬양예배>

제목 : 악한 영을 내어 쫓으라 성경: 마가복음 9장 15-29절

Tag: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9:15-29)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29절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9절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전체적인 맥락/context이 무엇인지 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9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등장인물: 제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그 사람의 귀신들인 아이가 있었다.

* 상황 :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은 마침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제자들은 중구난방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있어야 할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보살펴야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첫 단추를 살피지 않고 마지막 단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 자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제2막 : 예수님이 등장하심. 이로서 맥락이 바뀌었다.

그러자 맨 먼저 반응하는 것이 귀신이였다.

귀신은 맥락에 역전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다. 1막에서는 귀신이 주인공, 2막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

2막의 위기 : 그러나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의 맥락을 집어 나가셨다. 언제부터 이러는가? 이미 오래 된 귀신이라는 것을 간파하신 것. 오래 된 만큼 심각한 셈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상태 또한 오래도록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함.

회개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데려옴.

예수님은 이 문제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셨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상태가 오래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간파하심.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의 상태를 처절하게 생각하며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셨다.

3막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왜 안되었을까요?

-왜 안되었을까?

답;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다.

그래서 29절에 기도하라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안계시면 기도하라. 기도로 상황을 영적으로 전환하라. 맥

락을 바꾸라.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세요.

치료자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소서.

생명의 주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훈련.